

5월 20일 금남로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진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게와 돌고래 모양의 예쁜 모자를 쓰고 '찰칵' 5년간의 힘겨운 싸움 이제는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읍시다.



## 해군 주장으로 살펴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와 해군이 진정 국민을 지키려 할까?

**■해군** “강정마을회는 (...) 6차례 이상의 마을 자생단체장 회의, 어촌계 총회, 마을총회를 거쳐 후보지 대상으로 건의한 것임 (향약 및 절차 준용)”

강정마을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를 충분한 논의 없이 몇몇이 몰래 결정한 것이 분명한데도, 해군과 정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주민 1,800여명 가운데 87명이 임시총회로 해군기지 후보지 유치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뉴스를 통해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시총회 안건이 해군기지 유치라는 것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군** “제주해군기지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지가 아니며, 해상교통로 및 해양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중국 자극론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 미합중국이 일시 기항할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함정도 입항 가능.”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군사 패권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언제든지 입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새로

운 해양전략에는 각 지역별 기항지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 기항하여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해군** “군사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의 한 요소이며, 협상과 외교력 실패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수단임.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사례 및 교훈)”

위정자들은 ‘정치경제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의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을 침공했고, 일본은 주변국에 영토 분쟁을 자극합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국민들이 이것을 민족, 국가의 사활로 이해하며 군비경쟁에 찬동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독재 정권은 그렇게 성장하였고, 세계대전의 파국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해군** “우리의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

해군과 정부는 ‘국가 사업’이란 이유로 국민인 강정 주민들의 의견을 폭력적으로 억압합니다. 정부해군이 진정 지키려는 것이 국민인지, 자신들의 권력인지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쉽게 판단 가능합니다.

#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기획된 정리하고

## 쌍용차 정리하고 사태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서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는 보고서의 요약문입니다. 전문은 민중행동 홈페이지(pa.jinbo.net)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하고 사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다. 단 2년 반만의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집단 죽음에 대해 정부와 사측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다. 법원마저도 올해 1월, 해고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정리하고를 인정하고 말았다.

본 글은 쌍용차 재무제표, 생산성, 효율성 분석을 통해 2009년의 정리하고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쌍용차 정리하고가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SAIC)의 자본 철수 계획,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부의 전략, 회계법인들의 의도적 회계 조작 속에서 발생한 사태임을 보여주려 한다.

을 더욱 심각한 부실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상하이 자동차는 자본 철수 명분을 얻고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비효율적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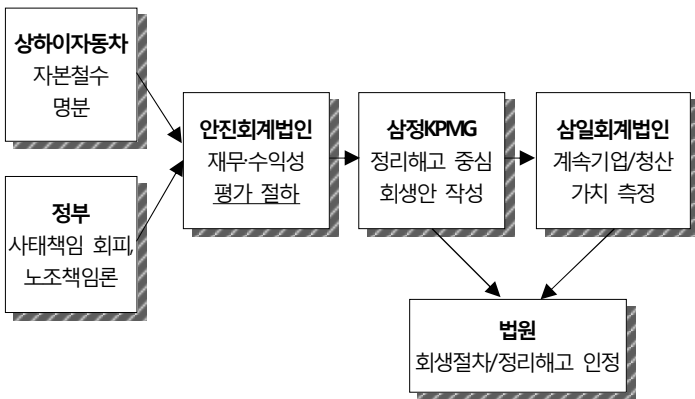
안진회계법인은 가장 회계적으로 다루기 쉬운 자산 평가를 갖고 나섰다. 느닷없이 2008년 말 유형자산평가액을 5천2백억 낮추어 부채비율을 세 배 높게 만들고, 당기순손실을 네 배 이상 높게 만들었다. 쌍용차는 겉으로 보기에 부실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작성된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평가는 완전 잘못된 수치였다.

안진이 만든 회계지표를 가지고 삼정KPMG는 쌍용차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를 기준으로 잉여인력을 산정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재무제표는 부채비율과 순손실을 과장했다. 그리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는 쌍용차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이용되었다. 삼정KPMG 보고서는 애초부터 정리하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였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삼정KPMG에서 산정한 정리하고를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측정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상하이자동차의 '떡튀' 경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삼정KPMG가 제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만을 고려했다. 만약 상하이자동차의 떡튀 경영으로 인한 2005~2008년 손실을 감안하여, 상하이자동차 경영권 소실로 인한 긍정적 경영 효과를 계산하면 쌍용차는 정리하고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했다.

쌍용차 정리하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상하이자동차, 정부, 여기에 근거를 제공한 회계법인들에 의해 발생한 참극이다. 쌍용차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빠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정리하고로 투신자살한 하이00씨의 49제에 맞춰 5월 19일 열린 쌍용차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사진-참세상] 지난 5월 22일은 3년 전 정리하고에 맞서 공장점거 파업을 시작했던 날이기도 하다.



개요는 위 그림과 같다. 기술유출을 모두 끝낸 상하이자동차는 2008년 말 자본 철수 명분이 필요했고, 정부는 상하이자동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둘의 공통 이해는 쌍용차 경영



# 공장과 업종을 넘어 간접고용 철폐 목소리를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장 최훈을 만나다

인터뷰: 정리 - 민중행동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법원으로부터 2년 이상 일했으므로 파견법에 의거해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해 겨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고, 25일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최병승씨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광주지역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작년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현재 불법파견 소송투쟁을 전개 중이다.

##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의 설움을 날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으로 공장이 들썩였어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는 48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차별과 설움을 겪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설 수 있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많은 고민이 있다. 3기 사내하청 분회장으로 당선된 지 4개월째인 최훈 분회장. 그는



최훈 노동자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설움을 없애고 전체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면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공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한다.

## “불법파견 투쟁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배부른 자본가들과 뜨는 맛짱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주식배당을 통해 총 678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2011년 당기순이익이 4조 7,77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 2,858억 원이 늘었다. 이익잉여금 역시 3조 5300억 원이 축적됐다. 고액 주식배당과 막대한 이익잉여금 축적에 현대차는 힘을 쏟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1조원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다.

## “대법원의 판결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법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끈질기게 투쟁했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목숨을 수도 없이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판결을 얻어냈을 것이다.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 법도 더 이상은 자본의 입장에 설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 “불법파견 투쟁을 소송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야죠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분회는 불법파견 투쟁을 공장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로 끄집어내고자 한다. 현재 공장 안에서의 선전전과 매주 마다 지역 거점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불법파견 투쟁은 소송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불법파견 투쟁을 확산시켜 사회적으로 간접고용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분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과 선전전은 작지만 소중한 투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끊임없는 중대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손상용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끊이지 않는 현장의 중대재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영암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였다. 사망사건 이외에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불공단의 조선업 노동자 사고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못한게 현실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미성년 현장실습 학생이 과도한 노동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 12월이었다.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에서 장기간 일한 노동자 수십명이 직업성 암 발생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산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중대재해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는 일은 산 넘어 산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는 산재 불승인 남발의 핑계를 지역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 넘겨버리고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면

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산재법이 개악된 후 산재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폭력적인 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왔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 아무 개선 없는 노동청의 뒷북 감독

금속노조와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의 강력한 행정 지도와 감독 그리고 사업주 처벌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뒷북치기 특별근로감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할 뿐이다. 즉, 사업주들의 이윤에 혈안이 된 생산지상주의와 하청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시스템의 붕괴 및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감독 소홀 방기와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결국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절실한 것이다.

## 사업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이 우선이다

결국 안전보다는 사업주의 생산 이윤 중심의 경영시스템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사업주 숨방망이 처벌이 사고의 원인이다.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동종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그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현장의 문제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더이상 광주전남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지역 사업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 총파업, 3M 노동자 살 길이다!

기고 - 김관규 | 금속노조 한국스리엠지회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6월 29일 경고 총파업과 8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통해 정리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

## 3M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총파업은 필수적!

그렇다면 이 총파업, 우리 3M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3M은 엄연한 노동탄압 사업장이다. 3M 사측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서 말도 안 되는 안만 던지며 실질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뒤에서는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 차별하여 노조를 탈퇴하게끔 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앞장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회사 밖으로 몰아냈다. 노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제 멋대로 노동자를 부려먹는 게 사측의 목적이다.

돌아켜보자.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를 쥐어짜고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사측에 분노하여 우리는 노조를 건설하지 않았던가? 희망퇴직과 임금삭감, 관리자들의 일상적 횡포를 참을 수 없어 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사측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그 당시에는 양보와 타협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간을 질질 끌며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있다. 노조와 사원들을 갈라놓기 위해 온갖 통제(예를 들어 외출 제

한,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 변경 등)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리자들의 힘만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노동자의 힘을, 투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3M 사측이 노동부와 경찰/검찰, 법원을 등에 업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등에 업고 3M 사측에 본때를 보여주자. 3M 투쟁 승리를 위해선 이번 총파업 국면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총파업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 3M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다시금 투쟁의 열기를 데우자. 노조를 처음 만들던 마음을 되새기자. 해고자들은 전국의 노동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며 3M의 노동탄압 상황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촉구하자. 현장에서 다시금 힘을 규합하며 정세 반전을 노리자. 회사와 관리자에게 대한 아니꼬움과 불만을 꼭꼭 참고 있지만 말고, 투쟁의 힘으로 터뜨리자. 나 혼자만 느끼는 불만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에, 용기가 나지 않기에 참고 있는 것이다.

참지 말자. 쫓지도 말자.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맛나는 일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다시 읽기

백정일 | 민중행동 회원

11.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데 있다.

- 칼 마르크스,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1845)

아주 오래 전 사회운동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 문장을 읽고 본질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명쾌함에 충격과 감동으로 한동안 멍멍한 상태로 지냈다. 이후로 수많은 책을 읽고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고 투쟁하면서 세계를 변혁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매끼 식사 때마다 기도하듯 새기면서 살았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탈근대와 탈마르크스주의를 외치면서 포스트구조주의에 기울고, 민주노조운동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운동이라고 너무나도 간단히 치부해버리던 그 때, ‘마르크스주의의 난점(경제학 비판)과 공백(이데올로기적 비판)’을 제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를 시도하던 사회운동의 한 경향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을 예찬하고 다양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참여를 외치던 포스트주의가 실은 마르크스가 <테제 6>에서 “인간의 본질을 역사적 과

정으로부터 떼어 내고, 순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파악”했고, 그리하여 “인간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인간 각각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회 관계의 총체이다.”(테제 6)라고 비판한 포이어바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개량적이고 우파스러운 운동의 흐름과는 다른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진정한 유물론자는 <테제 1>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유 객체’와 ‘감성적인 객체’를 구분해야 함을, 즉 ‘사고 대상’과 ‘현실 대상’을 구분해야 함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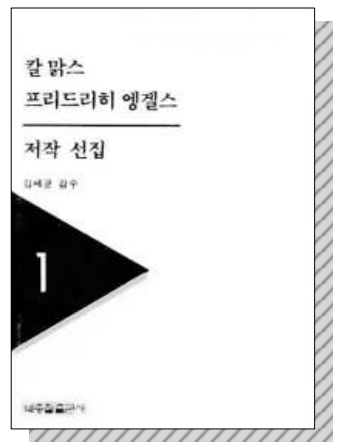
통합진보당의 어지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스콜라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테제 2>)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2012년 대선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마르크스가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활동의 변화와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테제 3>)고 갈파한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편집자주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는 짧은 글이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을 모아놓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박종철출판사)에 들어있습니다. 1권에는 유명한 「독일 이데올로기」, 「임금노동과 자본」 등과 여러 발췌글들이 같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1839



#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철쭉

## 철쭉으로 유명한 지리산 바래봉 이야기

장덕일 | 민중행동 회원



진달래

### 봄

조금은 더워져버린 늦은 봄이라고 해야할까?^^ 봄을 알리는 꽃들. 눈속에서도 피어나는 복수초, 얼음이 녹지 않았는데도 피어나는 버드나무바람꽃노루귀 등등등 많은 꽃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진달래’와 ‘철쭉’이 아닌가 싶다.

### 진달래

두견이가 피를 토하며 울어대던 자리에서 붉게 피어난 꽃이라고 두견화라고도 한다. 설마 새가 피를 토하며 울어야 하겠는가마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전한다. 두견이는 빠꾸기류 중에서 가장 작고, 울음을 울 때 입을 벌리면 입안이 빨강게 보여 흡사 피를 흘리는 것 같이 보인다.

진달래는 먹을 수 있다하여 ‘참꽃’이라 부르고, 술을 담기도 하며(두견주), 화전을 부치기도 한다.

철쭉보다 일찍 삼사월에 꽃을 먼저 피우고, 꽃이 지고나면 잎이 나온다.

흰 꽃이 피는 나무를 ‘흰진달래’, 잎 뒷면에 백색 털이 있는 나무를 ‘털진달래’로 구분한다. 털진달래는 주로 높은 산에 서식한다. 먹을 수 있다하여 참꽃이라 부르지만 참꽃나무는 따로 있다.(제주 한라산에 서식)

어려서는 친구들과 진달래를 따먹던 기억이 있다.

### 철쭉

먹지 못한다 하여 ‘개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달래가 지고나면 연달아 나온다 하여 ‘연달래’라고도 한다.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던지 아니면 잎과 꽃이 같이 나온다. 산 위



철쭉

에 있는 이파리가 다섯장 손바닥 모양인 나무를 철쭉, 잎이 어긋나며 가지 끝에 모여나는 나무를 산철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심 화단에 있는 나무들은 산철쭉이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산에서 만나면 산철쭉 화단에서 만나면 철쭉^^

철쭉은 독성이 강해 먹으면 구토설사마비증상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서 철쭉의 독성이 만들어낸 남원시 바래봉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보자. 철쭉으로 유명한 지리산 바래봉, 지금은 철쭉 축제도 진행하고 있다. 1971년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온갖 정책을 쏟아낸다. 그중의 하나로 지리산 바래봉에 호주산 양을 방목하기로 결정하고 1000여 마리 이상을 들여온다.

양들의 식성은 대단하다. 풀은 말할 것 없고 나무들도 껍질을 벗겨 먹어(염소가 책도 먹던 것을 목격) 울창했던 산림은 점점 사라져 갔다.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 산위로 길을 내고, 먹이가 사라진 곳에서 양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황폐한 자리엔 풀씨를 뿌려 목초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동하며 바래봉 일대의 울창한 산림은 사라지고, 오로지 독성이 있어 양들이 건들지 않은 철쭉만이 자리하게 됐다.

1990년까지 진행했던 이 상황은 실패한 정책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다.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 1호로 지정하고도 마음대로 파괴한 그 시절이나 40년이 흐른 지금 환경법을 개정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상황이 너무나 닳아 있는 것 같다. 철쭉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이전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봄이 다 가기 전 진달래와 철쭉을 만나봤으면 한다.



**5/20(일)**

오전에는 회원들과 망월동 묘역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열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5/20(일)**

5.18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금남로에 강정 사진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진받는곳: cafe.daum.net/peacekj



**5/9(수)**

격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독서모임.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읽고 토론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30일(수) 임철우의 '동행'입니다.



**5/1(화)**

122주년 세계노동절 광주전남 노동자대회. 나주 남교문 앞에 모여 3M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노조 결성후 3년, 단체협약 없고 임금은 조합원만 안 올리고, 19명 해고한 노동탄압기업 3M 규탄!



**4/14(토)**

한달 전 여성모임에서 찍은 둘째 여명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에 쏟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죠? 안부 연락은 필수! 다음 여성모임은 6월 2일입니다.



**5/22(화)**

환경연에서 영광고리 핵발전소 사고시 인명 피해를 모의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광에서 체르노빌급 사고시 광주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피난하지 않는다면 39.7만명 암시할합니다. 심지어 197km까지 피난구역이 됩니다.



**5/5(토)**

청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학생연대회, 금속노조가 주최한 전남대후문 희망콘서트. 기아차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의식불명된 김민재군의 회복을 기원하고, 현장실습제 문제를 다시금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5/4(금)**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이후, 기아차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화요일 출근 선전, 금요일 일인시위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3-4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쟁취,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단위들과 기자회견, 문빈정사 최저임금 선전, 간접고용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4-5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알리는 촛불문화제를 (구)삼복서점 앞에서 지역 단위들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용자의 책임 회피와 중간 착취 보장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주발제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 금속노조 미비국장)  
박현제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지역토론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일시** 5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2층 강당  
(기아차 1공장 남문 옆, 서구 내방동 662-1)

**주최** 광주전남지역 연대운동 재건을 위한 활동가 초동모임(가칭)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062-524-1175)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